



박승하 박사 제25대 고려대병원장 취임식 거행

국제적 명성을 가진 최고수준의 의료기관 만들어 갈 터
통원치료센터와 당일수술센터 강화, JCI 재인증
첨단의학센터 건립, 연구중심병원 지정육성에 적극 지원 예정



제25대 박승하(朴承河) 고려대학교병원장의 취임식이 지난 5일 거행됐다.

고려대학교병원은 2012년 1월 5일(목)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김린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김정묵 의과대학 교우회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우경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을 비롯한 내외귀빈 및 병원 교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박승하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과대학 졸업 후 30년 동안 몸담았던 고대 병원의 병원장이 된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JCI 인증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적 명성을 가진 최고수준의 의료기관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통원치료센터와 당일수술센터 강화, 첨단의학센터 건립과 JCI 재인증, 연구중심병원 선정, 초일류 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 등을 당면 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함과 더불어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내부 고객인 교직원들이 행복을 느끼고 서로 사랑을 베풀며 환자에게도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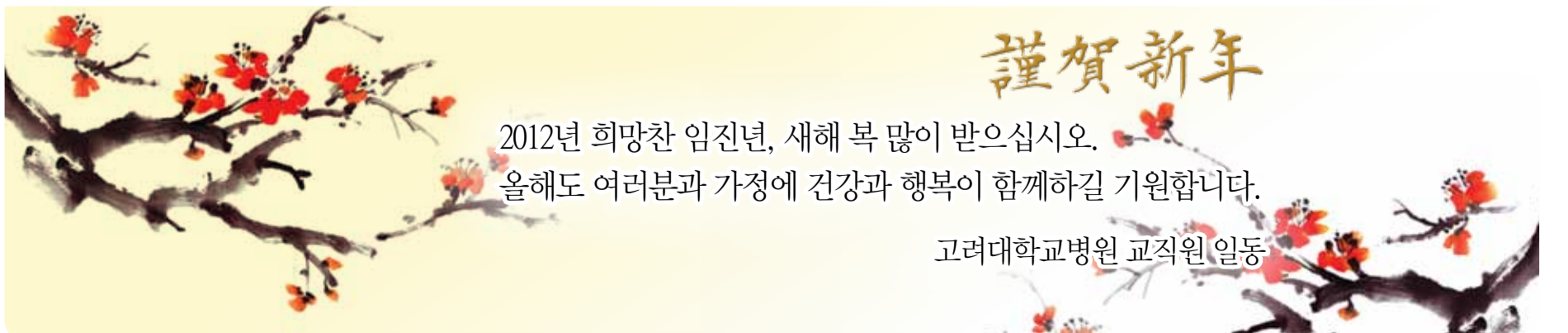
김린 의무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의료계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안암

병원은 미래지향적인 의료기관을 기치로 고려대의료원 전체가 국제적인 의료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힘찬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리라 생각한다”며 “고려대 병원이 꿈꾸고 있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료원 또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정묵 의과대학 교우회장 역시 축사를 통해 “솔선수범하는 리더십과 강한 결단력으로 병원에 몸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숨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대내외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고려대병원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며 “아낌없는 정성과 배려로 고려대병원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승하 신임 병원장은 1982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후, 1987년 성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2010년에는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하기도 했다.

또한, 고려대학교 정보전산처장, 고려대의료원 기획조정실장과 교육수련실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성형외과학회와 대한의학레이저학회 학술이사, 대한성형외과학회 레이저연구회장 등을 맡고 있다. 



취임사



존경하는 김린 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님, 김정목 의대 교우회장님, 한희철 의대 학장님과 원장님들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고려대병원 교직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병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간 고려대병원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신 김창덕 전임 병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의과대학 졸업 후 30년 동안 몸담았던 이 곳 고려대병원에 병원장이 된 것을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 70년 역사와 전통의 고려대

병원이라는 이런 큰 조직에 리더가 되어 방대한 업무를 잘 이끌어 가야 한다는 중압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병원장에 되어 전반적인 현안을 보고 있으니 현재 고려대병원에는 앞으로 헤쳐가야 할 난제들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병원 외적으로는 의료계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병원마다 무한 경쟁을 보이며 새로 개정되는 의료제도는 병원에 불리한 것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 내적 환경으로는 시설 보완과 인력, 장비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원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는 의식으로 교직원의 자긍심이 떨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료원 혁신을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상호 소통과 신뢰 그리고 일심 단결하는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당면한 과제로는 첨단의학센터 건립과 JCI 재인증, 연구중심병원 선정, 초일류 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등이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숙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병원장 취임식은 저만의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교직원 여러분과 함께 현재 우리병원의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발전하여 고려대병원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의식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배님들과 동료 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현재의 우리 고려대병원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2012년 새해 모든 분야의 화두는 위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하기 나름으로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은 가장 많은 직종의 전문 인력이 모인 곳입니다. 개개인 모두 우수한 인력이지만 자기만을 내세운다면 모래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촌선생님의 공선사후의 말씀처럼

자기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병원과 학교, 환자와 사회까지 생각하는 폭 넓은 거시안적 사고를 갖고 부서이기주의를 벗어나 합심하면 무서운 저력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지금 우리 병원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이를 인식함과 동시에 우리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글로벌 고려대학교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명성을 가진 병원으로 도약해 나가는 것입니다. JCI는 인증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병원의 의료수준을 대내외에 알리며 국제적 명성을 가진 최고수준의 의료기관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원치료센터와 당일수술센터를 대폭 확장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통원치료센터에서는 항암제 투여 같은 치료가 입원하지 않고 당일로 이루어지고, 1시간 미만의 수술은 당일 수술하고 퇴원하는 당일수술센터를 통하여 현재의 병상 수로도 치료효과를 극대화 하고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체되어왔던 첨단의학센터의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족했던 진료 공간을 확보하고 더욱 특화된 전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학병원 본연의 특성인 진료와 연구 그리고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과 육성을 추진하며 연구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수님들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의학을 선도하는 최고의 병원으로 나아가는데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저는 병원의 모든 부서에 귀를 기울여 의견을 청취하고 섬김과 봉사의 자세로 근무할 것이며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내부 고객인 교직원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고 서로 사랑을 베풀며 환자에게도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년 이상 장수 기업에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 굳건한 사명 의식이 있습니다. 민족 고대에서 민족을 위한 병원을 넘어 인류를 위한 세계적 고대병원으로 뻗어나가길 간절히 기원하며 교직원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가길 희망합니다.

저는 의무부총장님의 뜻을 받들어 의료원의 혁신과 발전에 앞장설 것이며, 제 말은바 소임을 다하는 날까지 항상 병원의 발전을 생각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교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교직원 여러분과 행복을 함께하는 병원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5일

고려대학교병원장 박 승 하


2012년 임진년(壬辰年) 시무식 거행

[스페셜 리포트 1]

“그동안 미진했던 인프라 구축 위해 적극투자”



객들이 최고수준의 진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진료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승하 병원장은 “올해는 눈부신 역사와 발전을 딛고 새로운 10년을 시작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해야할 때다”라며 “우리 병원의 오랜 숙원 사업인 첨단의학센터 신축 착공을 가시화하겠다. 이를 통해 특화된 전문적인 진료로 첨단 의학을 선도하는 국제적 명성을 가진 병원으로 도약하고 발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병원은 지난 1월 2일(월) 오전 8시에 8층 대회의실에서 ‘2012년 임진년(壬辰年) 시무식’을 거행했다. 이번 시무식에는 300여명의 교직원이 참석하 가운데 2012년 고려대의료원의 창조적 변화를 다짐했다.

김린 의무부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2년 새해는 창조적 변화와 발전을 위해 가속도를 내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그동안 미진했던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를 실천함으로써 앞서가는 의료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의료원 산하 병원의 전문 센터들을 더욱 특화해 기존의 의료서비스의 폭과 깊이를 더해나감으로써 병원을 찾는 고

"무료수술해준 한국에서 꿈과 희망안고 귀국합니다"

[스페셜리포트 2]

동티모르 의료봉사서 만난 3인 국내 초청 무료수술 고려대병원서 난소종양·갑상선종양·신장결석 수술받아



수술을 집도한 이정구 교수(맨 오른쪽)·정광운 교수(맨 뒤쪽)·김탁 교수(맨 왼쪽) 등 의료진이 환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매일경제 이충우 기자



지난 3일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국을 떠나는 동티모르 환자들을 병원 로비에서 환송하고 있다.

"아미 하카락 이타 포토 솔티!(Ami hakarak ita foti soliti!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티모르에서 건너온 낯선 이방인 환자 3명이 지난해 12월 30일 고려대병원 의료진과 함께 새해인사를 올렸다. 자기 나라에서는 꿈도 못꿨던 수술을 무료로 해준데 대한 감사 인사이기도 했다.

난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아구에다(24), 신장결석 수술을 받은 수자나(28), 갑상선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엘리스(37)는 오랜 여행과 수술로 피곤할 법도 한데 밝은 미소가 얼굴에서 떠나질 않았다.

고려대병원 개원 70주년 동티모르 무료봉사서 인연

수자나, 아구에다, 엘리스 등 3명은 개원 70주년을 맞은 고려대병원과 메디칼원아시아를 진행하는 매일경제 미디어그룹이 지난해 9월 4~7일 동티모르 딜리에서 무료봉사활동을 펼치다 만났던 환자들이다. 그 당시 의료봉사팀은 1307명을 무료 진료해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들 3인은 지난달 24일 동티모르를 출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박을 한 뒤 26일 오전 병원에 도착했다. 당시 병원장이었던 김창덕 원장과 권병창 경영관리실장을 비롯한 의료진은 처음 경험하는 추운 날씨에 잔뜩 움추려 있던 이들을 반갑게 맞으며 환영했다. 일주일만에 수술 후 퇴원이 가능하냐며 걱정스러워하던 이들에게 김창덕 전임 병원장은 "요로결석, 난소종양, 갑상선종양은 한국에서 비교적 어렵지 않은 수술로 일주일이면 수술과 처치, 경과관찰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안심시켰다.

요로결석 수자나, 수술없는 치료에 한국 최고!

이들은 약 일주일동안 병원에 머물며 각종 검사와 수술을 했고 3일 건강한 몸으로 출국했다. 수술은 비뇨기과 이정구 교수, 산부인과 김탁 교수, 이비인후과 정광운 교수의 집도로 이뤄졌다. 수자나는 왼쪽 콩팥(신장)에 1cm크기의 결석(돌)이 발견돼 체외충격파 쇄석술로 치료를 했다. 수자나는 "언니는 동티모르에 의료봉사활동을 왔던 중국인 의사가 치료를 하면서 배를 절개하여 커다란 상처가 남았다"며 "한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처없이 깨끗하게 치료를 해줘 최고"라고 기뻐했다. 그녀는 또 폐결핵이 의심돼 정밀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았다.

수자나는 "수술을 하기 전에는 빨래나 집안일을 세게 하면 허리부위가 1시간넘게 아파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다"며 "한국에서 수술후 하나도 아프지 않다"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이어 "물과 토양이 좋지 않은 동티모르에는 요로결석 환자가 많은데, 이들도 저처럼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동티모르는 어떤 나라

우리에게 낯설은 동티모르는 지난 2002년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한 나라로 강원도 만한 크기(1만 4874km²)에 113만명이 살고 있는 신생국가다. 독립하던 해에 열린 2002년 월드컵과 1999년 내전당시 한국 군인들이 심어준 근면성실함을 지켜왔던 동티모르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감정이 남다르다. 남위 8°에 위치한 동티모르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도(127.5°)가 지나가 시차없이 똑같은 시간을 쓰고 있어 한국 사람들에게도 가깝게 느껴진다. 동티모르는 아파도 치료 한번 못해보고 죽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동티모르는 사망자의 60%가 말라리아로 죽지만 단돈 5달러가 없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의료시설도 열악하고 의사를 양성하는

난소종양 제거한 아구에다, 임신해서 남편과 재결합 기대


아구에다는 17~20cm크기의 난소종양이 발견됐다. 그녀는 어른의 손바닥만한 난소종양이 자궁을 꽉 막고 있어 임신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구에다는 어린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남편에게 소박을 당했다. 집도를 했던 김탁 교수의 "난소종양이 왼쪽 나팔관과 붙어있어 어쩔 수없이 잘라냈다. 그러나 오른쪽 나팔관은 이상이 없어 임신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녀는 만감이 교차한 듯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동티모르로 돌아가면 남편을 설득해 재결합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구에다는 "결혼 후에 아이가 생기질 않아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이번 수술로 아이도 갖고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너무 고맙다"고 했다. 비교적 간단한 시술을 한 수자나는 "동티모르에 있는 아이들 4명이 보고 싶지만 모레 한국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너무 너무 아쉽다"고 안타까워했다. 수자나는 한국에 와서 몸무게가 2kg이나 늘었다며 한국음식, 특히 된장국이 너무 맛있다고 말했다.

갑상선 종양제거한 엘리스, 목에 혹 없어져 행복

초등학교 교사인 엘리스는 갑상선 한쪽부위에 지름 4cm크기의 굴만한 종양이 파리를 틀고 있었다. 갑상선종양이 워낙 커서 목이 밖으로 튀어 나와 음식을 삼키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녀는 갑상선을 절반이상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엘리스를 집도한 정광운 교수는 "요오드대신 호르몬치료를 할 정도로 수술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한국에 와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수술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엘리스는 "목이 튀어나와 사람들이 볼땐 엄청 창피스러웠다"며 "한국에서 수술한 목부위를 거울로 보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웃었다.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엘리스는 귀국하면 가족들이 가장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학교에 가면 학생들에게 한국이 너무 좋았다고 자랑을 많이 할 것"이라며 "제자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엘리스는 리퀴도예라는 산골마을에서 2005년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번에 수자나, 아구에다, 엘리스 등 3명을 초청해 무료수술을 하는데, 약 2500만원가량이 소요됐다. 유경재단과 서경석 동티모르대사, 고려대병원 의료사회사업팀의 지원과 협조로 수술이 원활하게 이뤄졌다. 비용은 4인(통역포함) 왕복항공권과 의료비, 부대비용 등에 사용됐다. 

의과대학이 아직 없다. 인구 25만명이 사는 수도 딜리에 있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기루 발라다레스 국립병원 1곳 뿐이다. 일반 클리닉은 국공립 및 사립을 모두 합쳐 6곳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도로여건이 좋지 않아 환자가 발생해도 병원이충중 도로 위에서 죽는 일이 다반사다. 동티모르는 수질이 좋지 않고 토양 대부분이 석회석이어서 요로결석 환자가 많다. 또 국토의 70%가 산악지역인 동티모르는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심해 열병과 감기환자가 많다. 하지만 치료약이 없어 나이든 사람은 폐렴으로, 어린아이는 중이염 및 청력상실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고대의대 20회 동기회, 의학발전기금 6천1백만원 기부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김린)은 12월 22일 오후 2시 의무부총장실에서 고대의대 20회 동기회로부터 '의학발전기금' 6천1백만원을 기부받았다. 이날 약정식에는 김린 의무부총장, 한희철 의대학장, 조태형 대외협력실장과 기부자 서원혁, 정덕희, 윤혜선, 홍영의, 나세철 교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기부약정은 고대의대 20회 동기회가 졸업 5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것으로 이번 선행을 계기로 동기회 중심의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김린 의무부총장은 "여러 교우회원들께서 뜻을 모아주시는 것에 대해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이 기금이 헛되지 않도록 후학양성과 의학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 며 감사를 표현했다.

장기이식센터,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장기이식센터가 잠재뇌사자를 발굴하고 뇌사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장기기증 희망을 장려하는 등 장기기증을 활성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교육장에서 장기기증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장기이식센터 김동식 센터장은 "장기기증활성화는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인만큼 효율적인 장기기증 업무시스템으로 장기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고대의료원, 카자흐스탄 마시모프 헬스센터와 MOU 체결



고려대의료원은 지난 1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5층 본부회의실에서 카자흐스탄 마시모프 헬스센터와 MOU를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김린 의무부총장, 박건우 의무교학처장, 조태형 대외협력실장과 마시모프헬스센터 안 라리사 베니아미노프나 한국지사장과 바를르크바예바 다미라 에살리에브나 한국지사 매니저, 최재훈 한국지사 매니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MOU 체결로 고려대의료원은 카자흐스탄 환자 진료를 위한 상호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카자흐 의료진을 대상으로 임상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상시험센터, 복분자 연구소와 MOU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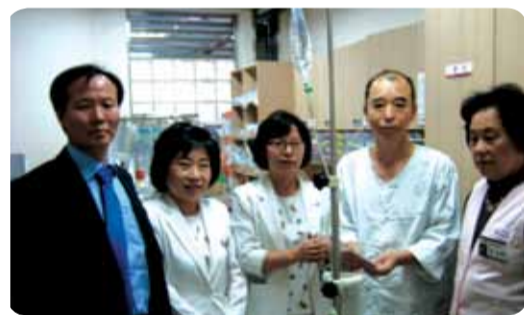
임상시험센터(센터장 인광호)는 지난 12월 26일(월) 고창복분자연구소(소장 정종태)와 상호 공동연구 및 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복분자의 기능성 검증연구 및 인적교류를 통한 신기술 개발과 연구 인력양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복분자 건강기능식품개발을 위해 기능성 검증연구계약을 추진하고 공동성장을 도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 일환으로 고려대병원 순환기내과 홍순준 교수가 "복분자의 혈중지질개선에 대한 임상연구" 를 고창복분자연구소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하기로 했다.

호스피스회, 암환자 4명에게 치료비로 400만원 전달



호스피스회(회장 신상원)가 지난 12월 22일 병동 수간호와 자원봉사자 등이 추천한 암 환자 4명에게 환자치료비를 지원했다.

투병기간이 길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선정해 후원한 이번 치료비 전달식에는 해당 환자의 수간호와 호스피스 임원 등이 참석했으며, 환자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400만원이 직접 전달됐다.

신상원 호스피스회 회장은 "호스피스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한 소중한 기금이 긴 투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 환자에게 전달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연말에 사랑을 나누는 훈훈한 행사를 가능하게 한 호스피스회원 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말했다.

원무팀, 새터민 청소년과 투병중인 환자 위해 성금 모금



원무팀(팀장 변동을)이 새터민 청소년과 20여년간 만성 신부전으로 투병중인 환자를 위해 성금을 모금해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원무팀은 지난 1년 동안 나눔과 봉사 모금함을 마련해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100원씩 모금해 모은 25만원과 자발적으로 마련한 기금 등 약 70만원을 합하여 성금을 마련했다.

이번 성금으로 도움을 손길을 나눌 기관은 병원 의료사회사업팀과 성북구청이 협의해 새터민 청소년 그룹 '가족' (청소년 보호시설)과 매주 3번 혈액투석을 받는 급이 1종 환자 조혜숙(46, 동선동)씨로 선정했다.

퇴원예고울 향상 최우수부서 포상



고려대병원은 '퇴원예고울 향상 TFT' 활동을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해, 퇴원예고제 및 12시 이전 퇴원을 우수진료과에 피자선물을 제공하는 깜짝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번 '퇴원예고울 향상 TFT' 활동은 입퇴원 대기시간 단축, 병상가동율 증대 및 환자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진행됐다. 2011년 5월 지표값 대비 10%향상을 목표로 지표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3시 이전 퇴원예고울」뿐만 아니라 「12시 이전 퇴원율」을 모두 목표달성을 한 우수 진료과로 이비인후과, 정신과, 상부위장관외과를 선정했다.

병원소식

당뇨환아들의 2박 3일 특별한 겨울휴가



프'를 열었다.

이번 캠프는 신한카드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당뇨환아들과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총 1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캠프기간 내내 서로 멘토, 멘티가 되어 1대 1 상담과 함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당뇨병 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법에 대한 전문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눈썰매, 요가를 비롯해 노래와 율동, 퀴즈 등 각종 치료 레크리에이션을 함께 하며 서로 간의 화합을 다지고 당뇨 극복의지를 북돋았다.

고대의료원 소아청소년과 당뇨교실 이기형 교수는 “당뇨는 관리만 잘하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다”면서, “자연속에서 같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래 친구들과 고민도 나누고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또한 많은 정보들을 배우고 공유하면서 당뇨를 스스로 관리하고 극복할 수 힘을 길러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아청소년 당뇨캠프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의료사회복지사들이 전문 교육 및 다양한 치료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소아청소년 당뇨에 대한 이해와 함께 환아 스스로 올바른 당뇨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매 캠프마다 100여명의 환아와 가족들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으며 당뇨환아들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고대의료원 소아청소년 겨울 건강캠프’ 통해 당뇨 극복의지 다져

고려대의료원 소아청소년 당뇨교실 환아들과 의료진들이 2박 3일간의 특별한 겨울휴가를 떠났다.

고대의료원 소아청소년 당뇨교실(위원장 이기형 교수)은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양평 미리내캠프에서 ‘소아청소년 겨울 건강캠프’를 열었다.

용띠들의 새해 포부

2012년을 맞이하면서....



어느날 갑자기 홍보실에서 “안혜숙 선생님, 용띠시네요?... 내년 용띠를 맞이하여 새해 소망이나 각오에 대해 간단하게 한마디 써주세요”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해를 보내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했던 저는 뭔가 한 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지며, 쳇바퀴 돌듯 너무나 반복적인 일상에 젖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 다짐이라는 것을 언제 적에 했었던지 가물 가물합니다. 그래도 한때는, 보신각 종소리를 들으면서 줄린 눈을 비비며 새해를 맞이하며 뭔가를 결심하고 소망을 키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결혼과 연년생의 출산, 일생의 중대한 사건을 4년 남짓 시간 순식간에 겪다보니, 시간적 여유를 갖는다는 것이 힘들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를 다시한번 돌아쳐보고 올해 가장 큰 소망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2012년 새해는 용의 해, 임진년입니다. 그것도 60년 만에 찾아오는 흑룡의 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니, 예로부터 용을 봉황, 기린, 거북과 함께 4명의 하나로 구름과 비를 부리는 신령스러운 동물로 용띠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마음의 중심이 잡혀있는 자신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라 합니다. 용띠로 36년을 살아오면서 용띠가 이렇게 좋은 줄 새삼 깨달았습니다

용띠로서 60년 만에 찾아오는 흑룡의 깊은 새해를 맞이하니 뭔가 기운이 솟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너무나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힘들다는 핑계로 혹은, 변화라는 것을 부딪히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지레 겁먹고 피하면서 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임진년에는,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용의 기운을 받아, 어려운 현실도 일부러 부딪혀 보고, 가정, 직장 핑계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좋은 징조가 가득한 새해에 자신과 싸우기보다는 자신과 즐기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 한 드라마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은 주인공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하나씩 꿈을 이뤄가는 모습을 본적이 있습니다. 저도 임진년에는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작성해 작지만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워 하나씩 이루면서 느끼는 행복을 만끽했으면 합니다. 가슴 뛰는 도전이 있는 삶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들 수 있기에.....

글 | 통원치료실 안혜숙 책임간호사

화합하는 한해를 기원하며



저는 관리팀 의공파트에서 의공기사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공파트 혹은 의공실이라하면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거라고 생각이됩니다.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는 병원이라는 곳에서도 참 특별한 직종 중 하나일 것입니다. 기술과 행정업무를 병행하면서 다방면의 각과(실)의 많은 사람들과 접하니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업무에서 타 부서 직원분들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진료부서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역할이다 보니 수리요청하는 부분이나 장비관리하는 부분 등에서 서로간에 문제와 오해가 쌓이기가 비교적 쉬운 부서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해를 뒤돌아 보면 저희 파트에 대한 아쉬운점, 불편했던 점, 서운했던 점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일이 많아 몸이 힘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에 접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일의 보람과 힘든 정도를 더 많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간의 소통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사람과의, 부서간의 벽을 쌓아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됨은 분명한 사실이니 말입니다.

이제 2012년 임진년 흑룡의 해가 다가오는데, 올 한해도 고려대병원 가족 모두가 부족한 것은 메워주고 이해하며 화합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힘든 환경에서도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올 한해도 한 단계 더 성숙해진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고대의료원 가족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올 한해 바라는 소원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글 | 관리팀 윤중호 주임의공기사

공황 장애 (Panic disorder)

[건강정보]



<공황장애 증례>

A씨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심하게 두근거리며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검사상에서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증상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아졌다. 이후에도 갑자기 한번씩 이런 증상이 나타나곤 해서 걱정이 된 A씨는 여러 병원을 다니며 여러 검사를 받았

으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한 의사에게서 공황장애에 걸리는 이야기를 듣고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사라지고 생활하는데 자신이 생겼다.

1. 공황 장애란?

우리는 누구나 시험을 치거나 면접이나 검사를 받게 될 때 긴장하고 불안해집니다. 때때로 이런 긴장감이나 불안감이 심해지면, 몸에 이상을 느껴 어지럽거나 뒷목이 빠근하거나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위험한 상황이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일종으로서 갑자기 불안이 엄습하거나 운전 중 흉부 통증이 나타나거나 출근시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실제적인 위험이 전혀없이 편안하고 익숙한 상황에서 난데없이 심리적인 증상이나 심혈관계, 신경계, 호흡기 계 및 소화기계 질환 등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환자는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불안 발작 증상이 발생하면서 '죽을 것 같은 심한 공포'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끔찍하고 두려운 경험으로 생각하게 되며 또다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불안과 걱정속에서 살게 됩니다.

2. 공황장애의 원인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어린 시절의 부모의 상실이나 무의식적인 갈등이 작용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공황장애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공황장애도 다른 대사 질환

과 마찬가지로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질환으로서 생물학적인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젓산, 요힘빈, 카페인, 이산화탄소, 마리화나, 코카인 등에 의하여 공황장애가 유발되고 마찬가지로 뇌교의 청반핵, 해마 중격 부위 및 뇌의 주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GABA가 관여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청반핵의 자극이 교감신경계에 각성을 일으키고 해마 중격 부위의 과민성이 기억, 신체,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조정하는 기능의 이상으로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별 위험 한 상황도 아닌데 시도 때도 없이 작동하여 불안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때때로 육체적인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후 에도 공황발작이 나타나 스트레스가 공황 발작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요인에 불과할 뿐 주원인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볼 때 공황장애의 원인은 생물학적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앞으로 더욱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3. 공황장애의 증상

지향할 수 없는 공포, 두려움, 불안 / 죽음에 대한 공포 / 미쳐버리거나 자제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공포 / 비현실감(다른 세상에 온 느낌이나, 자신이 달라진 느낌) / 신체적 증상 / 심혈관계 증상 / 흉부의 통증이나 압박감 / 맥박이 빨라지거나 심장이 마구 뛰 / 손, 발 혹은 몸이 떨림 / 어지러움, 휘청휘청하는 느낌, 쓰러질 것 같은 느낌 / 손발이 저리거나 마비되는 느낌 / 질식할 것 같은 느낌 / 호흡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 / 매스꺼리고 속이 불편함. 설사 / 땀이 많이 남 / 화끈화끈하는 열기나 오한 공황장애의 치료 공황장애는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4. 공황 장애의 치료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증상이 처음 시작될 때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료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 등의 비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치료를 하던 간에 먼저 환자와 가족에게 공황장애가 성격의 나약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치료는 뇌전달물질인 생물학적 이상을 교정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또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피로, 과음과 같은 요소들이 공황장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글 | 고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호경 교수

암환자의 마음을 다독이는 가위손

[이부서 이사람]



허영희, 오문순, 이소용 미용봉사자

“안아플줄 알았는데, 많이 아프네요”

머리를 밀어달라며 찾아온 한 환자의 말에 허영희 봉사자(60)는 마음이 울컥했다. 항암치료 때문에 자꾸 빠지는 머리를 밀어달라며 찾아온 예쁜 단발머

리의 20대의 이 여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가려달라고 부탁하며, 눈물을 그렁거렸다고 한다. 고대 안암병원에서 10년 넘게 환자들의 머리 자르는 봉사를 해온 허영희 봉사자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를 물었더니 본인의 마음도 많이 아팠다며 이런 얘기를 털어놓는다.

허영희 봉사자와 오문순, 이소용 봉사자는 함께 한 팀을 이뤄 미용봉사를 하고있다. 8층 소회의실 맞은편에 마련된 미용실에서 1,3,5주 금요일에 환자들을 맞는다. 2,4주는 다른 팀이 와서 봉사를 한다.

이소용 봉사자(39)는 처음에는 갑상선암을 수술하러 병원에 왔었는데, 나중에 봉사할 곳을 찾다가 우연히 이 곳을 알게되어 선뜻 참여했다고 한다. 봉사기간은 3년 정도인데, 처음에는 매주

미용봉사를 했다가, 봉사자가 많아 봉사일을 서로 나눴다고. 오문순 봉사자(51)는 허영희 봉사자를 스포츠센터에서 만나 봉사에 전도됐다. 봉사기간은 1년 남짓으로 가장 짧지만 그 만큼 밝게 웃으며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금요일 미용 봉사 하는 날이면 암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에 있는 입원환자들이 시작전부터 미용실 앞에 길게 줄을 늘어선다. 자칫 순서가 바뀌면 다툼이 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원래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시간 봉사를 하지만, 기다리는 환자가 많아 12시를 훨씬 넘어서 끝나는 날이 많다. 환자가 적어서 일찍 끝나는 날에는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찾아다니기도 한다고.

“예쁘게 기른 머리를 잘라내서 어떻게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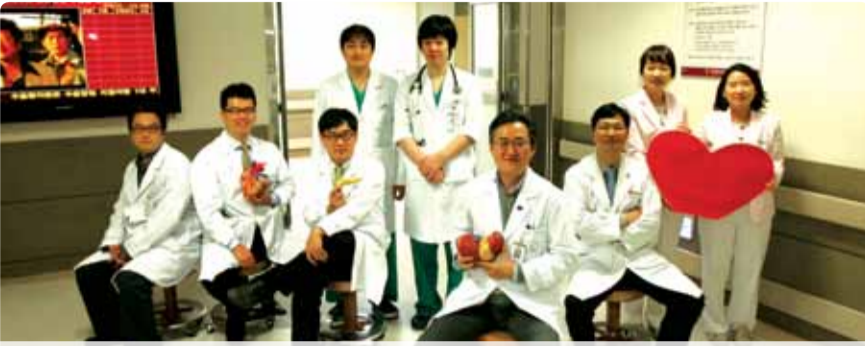
마음이 시른 듯 머리를 자르러온 고운 할머니에게 나직히 말을 건네는 허영희 봉사자. 항암치료 때문에 이미 많이 빠져버린 백발의 가는 머리가 잘라내기 못내 아쉬운 듯 조심스럽게 가위를 움직인다. 이곳에 머리를 자르러 온 환자들이 모두 다 나서서 항암치료도 멈추고 예쁘게 머리를 길렀으면 좋겠다는 세명의 미용봉사자, 환자들의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곱게 다듬어주는 이들의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한다.

입원환자 미용봉사: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8층 소회의실 맞은편 미용실



장기이식팀

[메디컬 드림팀]



고려대병원 장기이식센터 의료진이 모였다. 고난도의 장기이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내외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앞줄 가운데가 타 병원에서 상태가 안 좋아 포기한 간으로 이식수술에 성공한 김동식 소장이다.

간암 2기 판정을 받은 김태곤 씨(65)는 올해 4월 간이식 대기자로 등록했지만 치료를 받지 못했다. 김 씨 앞의 이식 대기자는 250여 명. 뇌사자로부터 간을 기증받기는 어려웠다. 이식 순서를 기다리다가는 간암을 이겨낼 길이 없었다. 이런 김 씨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낸 곳은 고려대병원이었다.

이 병원 장기이식팀은 상태가 나빠 다른 병원에선 포기한 기증자의 간을 구할 수 있었다. 이식팀은 건강한 간을 구하지 못한 김 씨에게 이 같은 차선의 대책을 제시했다. 장기 이식 후 김 씨에 대한 집중 치료가 진행되자 상태가 나빴던 간은 점차 건강을 되찾았다.

고난도 수술이 이어지면서 이식팀은 최근 2년간 신장이식 100건을 돌파하며 국내에서 손꼽히는 장기이식 전문 의료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 장기 이식수술의 역사를 새로 쓰다

15년 동안 소아당뇨로 고생하던 김승원 씨(26)는 최근 신장과 췌장 동시 이식을 받고 새 삶을 얻었다. 이식팀은 올 10월 심한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투석까지 받아온 김 씨에게 어머니(51)의 신장과 뇌사자의 췌장을 동시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김 씨는 지난달 완치돼 퇴원했다.

국내 의료계는 이식팀의 진료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뇌사자의 신장과 췌장을 동시에 이식하거나 산 사람의 신장과 췌장을 동시에 이식한 적은 있었지만, 생체 신장과 뇌사자의 췌장을 동시에 이식한 것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식팀은 이미 신장이식을 세 번이나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췌장을 이식하는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냈다. 몽골인 남성 간바트 씨(33)는 자국에서 신장이식을 받았으나 거부반응을 일으켜 지난해 5월 이식팀에 생체신장이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의 췌장 기능과 내분비 기능은 거의 다 망가져 있었다. 인슐린분비세포 파괴로 인슐린 분비가 결핍되는 제1형 당뇨병세가 나타나 췌장 이식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췌장 이식은 장기이식 분야에서도 매우 까다로운 수술. 국내에서도 6개 병원 정도만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식팀은 간바트 씨에 대한 수술에도 성공해 장기이식 수술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식팀을 이끄는 박관태 교수(외과·신체장 이식 담당)는 몽골에서 '복강경 수술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다. 1996년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박 교수는 외과를 마친 뒤 군의관 생활 대신 몽

골에서 4년 동안 의료봉사를 펼치다가 복강경 수술을 현지에서 처음 도입했다. 그러다 보니 몽골에선 박 교수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그가 몽골 전 대통령에게 건강상담을 해주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현지에서 장기이식이 어려운 몽골 환자들이 고려대병원으로 쇄도하고 있다. 박 교수가 2009년부터 장기이식팀에 합류한 이후 신장이식 건수가 10배 늘었으며, 이 중 30%는 몽골인이다.

○ 이식 대기 기간 줄이는 의술

고려대병원의 장기이식팀은 2004년 9월에 새롭게 문을 열었지만 장기이식을 거의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신장 간 폐 심장 등의 주요 장기이식은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소위 빅5 병원이 독식하다시피 했다.

고려대병원 이식팀의 장기이식 건수가 크게 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남들이 잘 안 하는 이식을 앞서서 시도했기 때문이다.

대개 간 이식의 경우 2년을 기다려야 겨우 받을 수 있다. 대기자만 5000여 명이다. 특히 신장은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도 많다.


이식팀의 김동식 교수(외과)는 "수많은 장기이식 경험을 통해서 남들이 꺼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B급 장기도 마다하지 않고 적절한 수혜자를 골라 이식한 것이 환자들이 몰려드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B급 장기란 지방간 등 기증자의 장기 상태가 좋지 못해 다른 병원에서 이식을 꺼리는 장기다.

이식팀은 'B급 간=쓸모없다'는 통념을 깨버렸다. 김 교수는 "환자가 회복하면 간은 이식받은 사람의 생활습관에 맞춰 변하는데, 예를 들어 지방간을 이식받았더라도 관리를 잘하면 건강한 간으로 변한다"고 말했다. 다른 병원에서 이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버릴 단계까지 간 장기를 사용해 환자를 살리는 사례가 늘어가자 장기이식 대기 시간도 크게 줄었다. 최근 안암병원에서는 신장이식 대기 시간은 평균 2년 반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 "환자의 소변에 환호"

박 교수와 김 교수는 이식팀의 쌍두마차 역할을 한다. 두 교수는 고려대 외과 레지던트 동기이다. 두 교수의 선의의 경쟁은 이식팀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2009년부터 정재승 교수(흉부외과·심장이식팀) △유영동 교수(간이식팀) △변건영 전임의(간이식팀) △김수연 코디네이터(신장이식팀) △김수진 코디네이터(간, 심장이식팀) 등 주니어 의료진이 가세하면서 이식팀은 안정적인 진용을 갖췄다.

실력과 이식팀도 장기이식 수술을 하면 '긴장 모드'에 들어간다. 특히 상태가 나쁜 B급 신장을 이식할 때 수술 뒤 환자가 소변을 보지 못하면 초긴장 상태가 된다.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 실패를 뜻하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신장이식 수술에 실패하면 이식팀에 치명타가 된다"며 "수술 후 2주일이 지나도 소변이 안 나오는 환자가 생기면 정말 하루 종일 한숨도 쉬지 못한다"고 말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나 소변을 보는 환자를 보면 진료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진다. 환자와 가족, 이식팀 모두 수술 성공을 자축한다. 

글 |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 동아일보 2011년 12월 14일 게재

한국인 마음의 MRI 찍기

[책으로부터 얻는 자유]




- 책이름 : 한국인의 심리코드
- 출판사 : 추수밭
- 저 자 : 황상민
- 키워드 : 정작 궁금했던 내 주위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다
- 이 코너에서 소개되는 책은 도서 대여실에서 빌려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920-5896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한다. 그러면서도 대세에 약하다. 대학, 직장, 출세, 부자, 결혼에서 남들에게 번듯하게 보여야 한다.

눈앞에 있는 사물과 사회현상도 본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은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갈등과 불안을 부추긴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최저, 이혼율의 증가, 경제적 풍요가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일까?

한국인의 심리코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막연한 믿음을 탐색한다. "한국인,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글 | 신장내과 김형규 교수



고려대학교병원 진료시간표

* 선택진료 의사 | 대표번호·전화예약 1577-0083 | 인터넷 예약 http://anam.kumc.or.kr | 응급의료센터 02)920-5373 | 2012년 02월 13일 현재

과 별(전화)	의 사 명	오 전	오 후	전 문 진 료 과 목	과 별(전화)	의 사 명	오 전	오 후	전 문 진 료 과 목	
소화기센터 3층 ☎6551	류호상	화,목	화,목	간질환, 위장관질환	소아청소년과 3층 ☎5650	손창성	수,목	금	소아심장질환, 신생아	
	김창덕	수,금	월,목	담석, 담도암, 췌장암, 췌장염		박상희	화,수,금	수	소아 소화기, 청소년질환	
	엄순호	월,수,금	수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이광철	월,목	목	소아혈액종양, 대사질환	
	전홍재	화,목,금	금	위장관양성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정지태	화,금	월,화	소아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환경성질환	
	이홍식	월,화,목,토	토	담석, 담도암, 췌장암, 췌장염, 위장관질환(토오전:4주)		이기형	월,목	월,수	소아내분비질환(저신장, 성조숙증, 갑상선, 비만), (목오전:2,4주)	
	진윤태	수,금	화,수	위장관양성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유기영	월		해외연수(12.01.01~12.03.09)	
	김보라	수,목	수,목	위장관양성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이은희	토	월,목,금	소아심장	
	김은선	월	월	위장관질환		남효경	금,토	화	미숙아, 신생아 질환(토오전:격주)	
	정진웅	월,목	월,금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2012.02.13부터~		일반의	월,화,수,목	수	소아내분비(토오전:격주)	
	최혁순	토	화	위장관질환(토오전:3주)		김영진	토	화,목	소아청소년질환	
김영진	토		위장관질환(토오전:1주)				예방접종(오전10:30~11:30/오후14:30~15:30)			
			위장관질환(토오전:2주)							
내과 3층 ☎5410	김형규	월,금	화	고혈압, 신장질환	소아클리닉	손창성 (월 오후)	소아심장초음파			
	조원용	수,금	월,수	고혈압, 신장질환		이기형 (2째주 화 오후)	갑상선, 비만, (수 오후):소아내분비-저신장, 당뇨, 갑상선, 소아비만			
	조상해	목	수,목	고혈압, 신장질환		은소희 (목 오후-격주)	소아신경질환			
	최혜민	월	화	고혈압, 신장질환		임형은 (수 오후-2,4주만)	소아신장질환			
	조은정	월,목	월,목	고혈압, 신장질환		이은희 (목 오후-격주)	미숙아, 신생아클리닉			
	이재원	화	금	고혈압, 신장질환		유방내분비외과 (유방센터) 2층 ☎6670	배정원	월,화,목	목	유방암 및 갑상선암/유방암클리닉(월,목:오전)
	김민자	수,금	월	간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김훈업	수,금	목	갑상선암 및 부갑상선 질환, 부신종양/로봇갑상선수술클리닉(수:오전)	
	손장욱	월,목	화	간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이혜윤	화,금	화,금	유방 및 갑상선 질환	
	김윤영	화	목	간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황성배	월,수	월,수	유방 및 갑상선 질환	
	박용	화,수,목	수,목	빈혈, 자반증(망)클리닉		조윤애	월,목	월,목	사시클리닉, 약시	
지종대	목,금	월,수	관절염, 류마티스, 루프스	김효명	화,목	월	백내장클리닉, 각막클리닉, 근시교정(라식)클리닉			
이영호	월,화,수	화,목	관절염, 류마티스, 루프스	오재권	월,수	월	망막 클리닉, 유리체(수:오후-레이저환자만)			
내과 일반의	월,금	월,금	내과질환	유재권	금	화,수	녹내장클리닉, 백내장(수:오전-초진환자만)			
				서영우	월,화	목	사시, 약시, 안성형			
				강수연	수,금	화	백내장, 각막, 근시교정			
				양선모	월,수	월,수	망막 클리닉, 유리체			
				일반의	화,수,금	화,수,금	안과 일반화			
내분비센터 3층 ☎5421	최동섭	화,목,금	목	내분비	가정의학과 2층 ☎5104	조경환	월,수,금	금	노인학, 골다공증, 만성질환, 호스피스	
	김신근	월,수	화,수	내분비		고병준	화,수	금	골다공증, 노인학, 건강증진, 금연	
	김희영	화,수	월,수	내분비		김양현	수,목	화,수	비만, 건강증진, 해외진검, 건강상담	
	김주형	목	월,목	내분비		김민지	월,화,목	월,목	금연, 비만, 건강증진	
	김윤정	금	화	내분비		일반의	월~금	월~금	신체검사, 건강상담, 성인예방접종	
	조명진	월	금	내분비		김민수	월,수,금	수	우울증, 치매, 정신분열증	
	김열홍	수	월,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이민수	월,수,금	수	수면장애, 적응장애, 정신분열증	
	신상원	목,금	화,목	두경부암, 폐암, 호스피스		함병주	월,화,목	목	우울증, 불안장애, 정신분열증	
	김병수	월,화,금	수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식, 혈액질환		이현정	화,수,목	화	조울증, 수면장애, 정신분열증	
	박경용	월	수,목	유방암, 부인과암, 비뇨기암		윤호경	금,토	목,금	불안장애, 공황장애, 수면장애(토-1,3주)	
박승태	월	월,목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식, 혈액질환	일반의	월~토	월,화,수,금	일반정신의학(토오전:매주)			
김철용	월,화,목,금	월,목	폐암, 소화기암, 두경부암, 유방암	신경과 2층 ☎5510	박건우	목	월,목	파킨슨병, 운동장애, 치매, 기억장애		
박영재	화,수	월,화,수,금	뇌종양, 부인암, 비뇨기암, 림프종, 소아종양, 육종		김병조	월,수	화,수	다발성경화증, 말초신경질환, 척추, 근육질환(화오후:초진진료)		
이광철	화	화	종양학		정기영	수,목	월,목	간질(뇌진동), 수면장애, 두통, 목오후:수면장애		
박종훈	수	수	종양		오성욱	월,화,금,토	화	뇌졸중, 뇌혈관질환(금:오전 2,4주)		
윤호경	수	수	우울, 불안, 수면장애		조경희	화,금,토	수,금	뇌졸중, 어지럼증, 두통(금오전:1,3주)(토오전:2주)		
					이찬홍	화,금,토	목	파킨슨병, 운동장애, 치매, 기억장애(토오전:1주)		
					장재용	토	월,수,금	신경과질환, 말초신경질환, 근육질환(토오전:4주)		
					일반의	월,수,목	화	신경과질환		
					이규완	수	월	부인암(자궁경부암, 난소암, 내막암)		
					김선행	목	수	불임(체외수정), 폐경기관리, 여성내분비		
				김성탁	월	화,금	불임(체외수정), 폐경기관리, 골반경수술			
				홍순철	월,토	화	산과, 임신중약물상담, 고위험임신클리닉(토오전:매주)			
				송재윤	수,금	수	부인암(자궁경부암, 난소암, 내막암)Colpo시술, 로봇수술			
				안기훈	화,목	목,금	탈장, 일반산부인과			
				이상훈	화,목	월,목	부인암, 종양생식비종(암환자수정란, 난자, 난소동결&이식)			
				일반의	월~토	월~금	일반산부인과(토오전:매주)			
				산부인과클리닉: 이규완(월 오후 수 오전), 김선행(월-금 오전 수 오후 목 오전), 김택(월 오전 화 오후), 홍순철(월 오전), 송재윤(금 오전 수 오후), 안기훈(목 종일, 금 오후), 이상훈(화,금 오전, 목 오후)						
호흡기 ☎5111	유세화	월,수,목	목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피부과 2층 ☎5470	계영철	월,화,목,금	금	건선, 탈모, 아토피, 레이저	
	인광호	월,수,목	목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안효현	수	월,목,금	아토피, 백반증, 레이저	
	이상엽	화,금	월,수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서수홍	목,토	월,수	피부암, 백반증, 레이저(수오전만)(토오전:1주), 피부과레이저클리닉:수오전	
	이은주	토	월,화,목,금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최재은	월,금,토	화	여드름, 아토피, 레이저(목오후만)(토오전:2주), 피부과레이저클리닉:목오후	
	이승현	토	화,수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토오전:매주)		일반의	토	수,금	일반피부과학(토오전:3,4주)	
	김광택	화	목	폐, 기관지, 식도외과, 다한증, 하지정맥류		김재종	수,금	수	남성과학, 불임	
	신호경	목,금	월	심장, 혈관외과, 인공심장		이정준	월,목	화	배뇨장애, 요실금	
	손재승	목	월	심장(관상동맥, 판막), 혈관질환		천영휘	화	월,수,금	종양학, 전립선암(로봇-복강경수술)	
	조종호	수	화	대동맥, 관상동맥, 말초혈관질환, 심장판막, 심장이식		강성구	화,목,금	화,목,금	내비뇨기과학, 종양학, 결석(금오후:1,3주)	
	일반의	수	수	일반흉부질환		장훈아	토	금	일반비뇨기과학, 종양학(금오후:2,4,5주)	
			일반흉부질환	일반의	화,금	화,금	일반비뇨기과학(토오전:2주)			
							일반비뇨기과학(토오전:4월 넷째주부터)			
외과 3층 ☎5401	김종석	수	월	위암, 상부위장관 질환	재활의학과 2층 ☎6470	권희규	월,수,금	금	전기진단, 뇌성마비, 척추손상	
	박성우	화	목	위암, 상부위장관 질환		강윤규	화	월,목	통증, 관절염	
	이동우	목	금	위암, 상부위장관 질환		이상현	목	화,수	어깨통증, 척추디스크, 관절염	
	서성욱	월,수	목	간, 담도, 췌장질환		편성범	수,목	화	뇌질환재활, 인지장애, 연하(삼킴)장애	
	김동식	화,금	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하강욱	수,목	월,목,금	일반재활의학과과학	
	유병건	목	화,금	간, 담도, 췌장질환		일반의	화,금	금	견관절통증, 경부통증, 요통	
	김진승	목	월,화	대장, 직장, 항문질환		권종진	월,금	화	구강외과	
	조세진	화,금	월	대장, 직장, 항문질환		임웅규	월,수	월,수,목	교정과	
	백신재	월,수	수	대장, 직장, 항문질환		전경아	월,화,목	월,목,금	보존과	
	박관태	화	목	장기이식(신장, 췌장), 혈관질환, 하지정맥류		최연조	월,화,수,금	월,화,수	보철과	
부윤정	목	화	소아외과, 탈장	전상호	월,화,수,금	월,화,수,금	구강외과			
				김예진	수	월,수,금	치주과			
				일반의	월~금	월~금	교정과(토오전:매주)			
정형외과 3층 ☎5430	채인정	목	화	무릎, 인공무릎관절, 관절경, 척추	이비인후과 2층 ☎5455	이상학	월,수,토	월	알레르기, 후각, 코성형, 부비동염, 비부비동 증양(토오전:4주)	
	이순학	수	월	소아정형외과, 사지연장술, 족부, 금오전:1,3,5주(뇌성마비 및 보행장애, 족부변형) 금오전:2,4주(고관절이형성, 초음파클리닉)		김태훈	화,목,토	화	해외연수(~2013년 2월까지)	
	박중웅	금	목	수부, 미세수술		박세진	화,목,토	화	비과, 일반이비인후과학(토오전:3주)	
	한승범	월,목	목	인공관절, 인공고관절, 고관절, 골절, 외상학		정학현	목	월,목	만성중이염, 소아이비인후과, 어지럼증	
	박중훈	화	화	종양, 외상		장지원	월,수	수,금	미국연수	
	정웅교	월,금,토	금	어깨, 팔꿈치, 스포츠의학(토오전:2주)		정광운	화,목,토	목	만성중이염, 어지럼증, 인공와우, 보청기, 일반이비인후과학	
	박시영	수	월,수	척추, 외상		백승우	수,금,토	수	두경부암, 갑상선암, 부갑상선암(내시경, 로봇수술)(토오전:2주)	
	이대희	화,토	목	무릎, 스포츠의학(토오전:1,3,4주)		박민국	화,목,토	금	두경부 일반이비인후과학	
	박준상	월,금	월,금	외상		일반의	금,토	월	일반이비인후과학(토오전:1,2,3,4주)	
신경외과 3층 ☎5550	서중근	화,목	수	척추질환, 척추외상	영상의학과 3층 ☎5571	정광운 (목 오전)	갑상선 종양 클리닉			
	정영욱	수,목	화	뇌종양, 척추종양, 뇌혈관질환, 두통		김태훈 (화 종일)	알레르기 비염 클리닉(해외연수:2013년 2월까지)			
	조태형	월,수	월	통증외과, 척추질환, 간질, 운동장애		장지연 (수 종일)	어지럼 클리닉			
	강신호	월	목	척추질환, 척추외상, 출기세포치료		이남준	월,수,금	금	뇌혈관조영술 및 뇌동경부 증대수술	
	이장보	화	목	뇌종양, 소아뇌질환, 뇌혈관질환, 두통, 안면경련		김윤환	월,화,목,금	월,화,목	간암 및 복부 인터넷수술	
	박동혁	월,수	월,수	척추질환, 척추외상		최성범	월,수,금	월,수,금	간암 및 혈관 인터넷수술	
	박경재	금	금	뇌혈관질환,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두부외상		초기정	월	월	종양학의학, 방사선종양치료	
	박성대	금	금	척추질환, 두부외상		장성호	월,목	월,목	통증관리	
	안덕선	월,금	목	귀성형		이혜원	수	화,금	통증관리	
	박이성	월,수	화	손저림증, 화학적박피		박지용	화,금	화,금	통증관리	
성형외과 3층 ☎5440	안덕선	월,금	목	손저림증, 화학적박피	외국인진료센터	이희순	월~금	월~금	일반적인 외국인 내과, 소아과 질환	
	박이성	월,수	화	소아기형, 안면마비, 레이저박피		통합의학센터	이성재	금	월,수,목	심장건강, 뇌정신건강, 피부건강, 여성건강, 알코올, 만성통증관리, 학습장애클리닉, 만성피로클리닉
	이정윤	화,목	화	미용성형, 미용유방성형, 미세수술, 안면재건성형						
	윤정일	화,목	화	레이저						
	일반의	화,수,목,금	월~금	외상						
				일반재건성형						